



출판진흥원, 출판콘텐츠 OSMU 활성화 위한 공개포럼 개최 **“출판, 다양한 장르에서 기본 텍스트로 활용돼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재호)은 지난 10월 29일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3층 바실리오홀에서 ‘책, 백가지 꽃으로 피어나다’라는 부제 아래 ‘출판콘텐츠 OSMU(One Source Multi Use) 활성화’를 위한 공개포럼을 개최했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이재호 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문화 역량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세계가 한국의 문화를 즐기고 있다. 한국문화를 즐긴다는 것은 우리의 책을 즐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출판문화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출판콘텐츠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OSMU가 필요하다. 오래전부터 OSMU 포럼을 준비했는데, 이제서야 첫 발을 떼게 됐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출판 콘텐츠를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환경, 다변화 가능성을 모색해 봤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포럼은 권원순 한국대학출판부협회 회장(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박장순 흥익대학교 영상대학원 교수가 ‘한류 소재산업 출판 기반 OSMU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으며, 이어진 토론에는 이우혁 소설가 겸 시나리오 작가, 오동진 문화평론가, 홍승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이현정 도서출판 마음의숲 편집주간, 박희설 스토리티브이 사장 등이 참가했다.

“출판, 한류시대 주역되려면 OSMU 활성화 필요”

박장순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1차 한류시대(1987~2009)에는 드라마가, 2차 한류시대(2010~현재)에는 K-POP이 메인스트림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문화산업 수출에서 드라마와 K-POP이 차지하는 비중은 7.1%, 2.6%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출판은 최소 1.6배에서 최대 4.3배가 큰 11.1%를 차지한다. 그런데 왜 출판은 한류의 메인스트림으로 세계시장에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표하면서 그 이유를 “전 지구적 대중화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를 위해 한국출판은 도서의 기획,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드라마, K-POP, 온라인 게임 등과 같은 기존 한류 산업들과의 연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OSMU 활성화를 위해서는 ▲열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시스템요소를 잘게 쪼개고, 요소의 대칭성을 파괴해야 한다 ▲시스템 요소의 상호작용을 증대시켜야 한다 ▲



2

전체 시스템과 시스템요소는 공진화(co-evolution)해야 한다
 ▲시스템요소의 일탈을 막기 위해 적절한 규칙이 필요하다 등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독자들의 관심을 끌게 된 소설이 인기에 힘입어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출판만화, 게임 등 다른 장르의 기본 텍스트로 활용된다면 이는 소설의 OSMU 사례로 볼 수 있다. OSMU의 활성화는 한류시장의 전체 파이를 키우는 동인이 되고, 출판이 드라마와 K-POP의 뒤를 잇는 한류의 새로운 메인스트림으로, 3차 한류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OSMU, 출판에서 시작

이우혁 소설가 겸 시나리오 작가는 “미국을 제외한다면 한국만큼 OSMU가 가능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국가가 드물고 출판도 결코 약하지 않고, 영화, 드라마, 음악을 비롯해 심지어 만화나 애니메이션까지도 산업기반이 든든히 갖춰져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장르에 걸쳐 성공하는 작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는 콘텐츠 자체에 대한 인식의 한계에서 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원작이나 스토리를 홀대하는 풍조가 가장 문제다. 비전문가들이 스토리에 개입해 이야기가 산으로 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오동진 문화평론가는 “출판과 영화의 연계는 출판쪽에서 영

화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좋다. 영화에서 시작돼 출판으로 옮겨졌을 경우에는 아직까지 좋은 결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제작자와 투자자들은 좋은 시나리오를 찾기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매일매일 엄청난 분량의 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에세이나 신변잡기, 처세와 경영혁신에 관한 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OSMU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출판물을 다른 장르로 확장할 수 있는, 거기에 맞는 문학작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승기 교수는 “출판콘텐츠의 OSMU가 보다 활발해지려면 창작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종전의 저작권 계약서에는 ‘저작권 일체를 양도한다’라는 방식으로 저작거가 이뤄져 왔지만 최근 작성된 표준계약서에서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양도하는 취지인지 자서하도록 해 창작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마음의숲 편집주간은 “tvN 드라마 미생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콘텐츠 미생’은 출판을 기반으로 하는 OSMU의 전형적인 사례에 속한다. 웹툰을 통해 사전이슈 작업이 이뤄졌고, 웹툰 연재 종료 및 단행본 완간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드라마로 재생산되면서 미생을 경험한 기존 유저들이 지갑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복합화 전략이 유의미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전형성을 넘어서는 영역의 사례가 점점 더 많이 시도돼야 한다”고 말했다.☞



3



1. 이재호 한국출판산업진흥원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 포럼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
3. OSMU의 대표사례로 꼽히는 미생. 미생은 웹툰, 단행본, TV드라마에서 모두 큰 인기를 모았다.